



저산도 진황정



잠도 갈새



상도 눈알고동



육도 갯민숭달팽이류

완도 무인도들은 동식물 '생태박물관'

■ 국립환경연구원 19개 섬 환경조사

저산도(닭섬)·잠도(누에머리)·문어북도·장구섬 등 완도지역 4개 무인도에서 멸종위기인 매·수달과, 우수한 난대성 식물이 발견되는 등 보존 가치가 커 특정도서로 지정해야 할 것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소구도·큰할미섬(대고도)·작은할미섬(소고도)·육도·중도(미역섬)·육매도 등 일부 무인도에서는 염소·토끼 목장으로 사용되면서 자연훼손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잘 보존된 상록활엽수림 = 국립환경과학연구원(원장 윤성규)은 지난해 실시한 완도군 노화읍·보길면·소안면 19개 무인도에 대한 자연환경조사에서 매·수달 등 멸종위기 야생동물을 발견하고 특이한 서식생 및 다양한 식물상, 난대림 수종 분포를 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

연구원에 따르면 저산도에서는 곰솔·우묵사스레피나무군락, 까마귀죽나무군락 등 다양한 상록활엽수림이 발달해 있었고, 진황정·큰천남성·쇠별꽃·자금우 등 갖가지 난대성 초본도 발견됐다.

잠도는 해식동이 잘 발달돼 있고, 참억새피군락을 중심으로 무인도 특유의 초지식생이 잘 발달돼 있다. 해안 절벽지대를 선호하는 갈새의 번식지다. 특히 멸종위기 야생동물 I급인 매 한 쌍이 발견돼 번식지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토끼와 염소가 방목돼 있어 식생과 식물상 훼손이 우려된다.

문어북도는 상록활엽수림의 자연생태적 기능과 천이과정을 연구할 수 있는 학술적 가치가 큰 지역으로, 바다직박구리 번식지일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평가됐다. 해안무척추동물도 다양하게 발견됐다.

장구섬의 경우 돈나무·광나무·송악·백화등·물가시나무·다정나무 등 난대성 식생이 군락을 형성하고 있다. 연안에선

저산도-곰솔·큰천남성
잠도-매·갈새·참억새피
문어북도-바다직박구리
장구섬-돈나무·광나무

대형 갈조류도 발견된다.

동치섬은 보길도와 인접한 섬으로 염소방목, 다시마와 전복 양식 등 인위적 훼손이 우려된다. 하지만 멸종위기 야생동물 I급인 수달의 배설물을 확인, 이동 경로이거나 서식처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조사됐다.

○염소목장화 우려 = 큰할미섬·작은할미섬·육매도·중도 등의 해양 가장자리는 큰비속·나문재·메귀리·사철쭉·갯가미취 등 염생식물이 분포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섬은 사유지여서 염소와 토끼를 방목, 식생변화가 심각한 수준으로 관찰됐다. 특히 염소는 목본 식물의 줄기 겹질까지 갉아먹기 때문에 자생식물의 피해가 극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환경과학연구원 이종천 연구관은 "사유지인 무인도의 경우 염소나 토끼를 방목하는 바람에 이들이 즐겨먹는 식물 피해가 심각하다"며 "효율적인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무인도는 생태계 박물관 =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조사에서 경남 통영과 충남 태안 지역 무인도에 대한 조사도 벌여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7종과 국내 미기록우뚝 8종을 발견했다.

조사에서는 태안군 벽룡도와 삼도, 울미도 등 10개 섬에서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인 매가 관찰됐다. 태안군 안도와 동

■ 완도 무인도 평가 등급

No.	도서명	면적(㎡)	소유	보존 등급	멸종위기 야생동물	조류의 번식 여부	훼손 여부
1	형제도	13,087	국유, 사유	2		V	
2	잠도(누에머리)	82,017	국유	1	V		
3	문어북도	12,496	국유	2		V	
4	문어남도	7,836	국유	2		V	
5	기덕도	22,017	국유	2		V	
6	저산도(닭섬)	113,355	국유	2		V	
7	삼도	19,230	사유	2		V	
8	중도(미역섬)	7,636	사유	2		V	V
9	육매도	8,826	사유	2			V
10	치도	19,934	사유	2		V	
11	소마섬도	18,942	사유	2		V	
12	장구섬	21,322	사유	2		V	
13	목섬	17,058	사유	2		V	
14	소구도	15,511	사유	2		V	V
15	큰할미섬(대고도)	48,398	사유	3		V	V
16	작은할미섬(소고도)	18,644	사유	2		V	V
17	육도	11,207	사유	3		V	V
18	동지도	6,645	사유	1	V		V
19	기도	26,529	국유	2			

(자료: 국립환경과학연구원)

격렬비도 2개 섬 바다 속에서는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종인 장수사자조개가 발견됐다. 이는 1992년 장수사자조개가 새로 발견된 종(신아종·新亞種)으로 기록된 이후 처음으로 생체가 채집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통영시 소재 축도에서는 멸종위기 야생식물 2급종인 애기둥 자생지가, 하량도에서는 백로와 왜가리 서식지가 확인됐다.

환경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형·경관이나 식생이 우수하거나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희귀종이 서식하는 섬을 특정도서로 지정, 자연생태계를 보전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1998년부터 국내 2천679개 무인도를 조사해 오고 있다.

/김주정기자 jnews@kwangju.co.kr

■ '자전거 30km 출퇴근' 이득 따져보니

월 유류비 최소 6만원 절약 이산화탄소 저감량 100kg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는 자전거 마니아 김현식(43·회사원·광주시 동구 운림동)씨. 광주전 자전거도로를 이용해 집에서 직장이 있는 상무지구까지 매일 30km를 달리면서 건강은 물론, 교통비까지 아끼고 있다.

그렇다면, 그가 자동차 대신 자전거로 출퇴근하면서 얻은 이득은 얼마나 될까. 건강과 도시 혼잡 등 여러 사회적 비용 효과를 들 수 있겠지만, 가장 쉽게 드러나는 기름값과 CO₂저감량만 측정해본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김씨는 지난달 말부터 서울환경연합과 인터넷 커뮤니티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는 사람들'(자출사)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자전거로 CO₂ 다이어트' 캠페인 홈페이지(www.co2diet.or.kr)에 들어가 구체적인 이득을 따져봤다.

먼저, 자전거 출퇴근 거리 30km를 입력해 보았다. 소형차(1000cc 미만) 대신 자전거를 선택했다고 했을 때 결과는 유가 기준(2005년)으로 3157.5원, CO₂저감량은 5.0kg로 나타났다. 탄소배출권 가격(2005년 평균 거래가)은 123.9원. 20일 정도 출퇴근한다고 가정하면 기름값 절약만 6만3천

150원, 탄소배출권 가격은 2천478원을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크기가 커지면 비용도 올라간다. 중형차(1000~2000cc 미만)라고 했을 때는 유가 기준으로 3천965.7원, CO₂저감량은 6.3kg, 탄소배출권 가격은 155.6원이다. 똑같이 20일을 적용하면 기름값은 7만9천314원, 탄소배출권 가격은 3천112원이었다.

대형차(2000cc 이상)일 때는 유가 기준으로 5천527.5원, CO₂저감량은 8.8kg, 탄소배출권 가격기준은 216.8원이다. 역시 같은 기준일 때 기름값은 11만550원, 탄소배출권 가격은 4천336원이었다.

홈페이지상의 탄소배출량 계산식은 세종대학교의 'CO₂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근거로 만들어진 것으로, 실제 자동차를 포기했을 때보다 비용이 많은 것은 아니다. 자동차를 몰고 다녔을 때 기본적으로 들게 돼 있는 주차비, 보험료 등이 빠져 있기 때문이다. 이 비용을 더하면 최소한 수치는 2~3배 이상 늘게 된다.

/김주정기자 jnews@kwangju.co.kr



지나달 광주시 동구 금남로 일대에서 열린 '지구의 날' 기념 자전거 대행진. 광주의 자전거 도로율은 목표 대비 74%에 불과한데, 연결성마저 떨어져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위정림기자 jrwi@kwangju.co.kr

광주 자전거도로 151개 노선 193km 불과

개설률 74.4%

자전거가 경제적 교통수단이자 환경오염을 줄이는 대체 교통수단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광주시의 자전거 발전소와 순천의 태양광 발전소 등을 방문하는 신재생에너지 투어도 계획하고 있다.

문의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 (514-2470).

/김주정기자 jnews@kwangju.co.kr

24개 노선 42.84km, 남구 20개 노선 32.88km, 북구 54개 노선 102.19km, 광산구 29개 노선 83.37km다.

이들 자전거 도로 중 전용노선은 ▲광주전 좌안(11.08km) ▲용연로(옛 화순 너릿재 길·6.9km) ▲영산강 좌안(0.98km) ▲첨단로(11.32km) ▲태평선(우치~태평·2.1km) 등 5개 노선 32.4km로 전체 자전거 도로의 11%에 불과하다.

/김주정기자 jnews@kwangju.co.kr

신재생에너지 현장 투어

광주환경연합, 23일 DJ센터 등 견학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에너지관리공단 전남지사와 공동으로 오는 23일 광주와 담양군 일대에서 신재생에너지 현장 투어를 실시한다.

참가자들은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터와 광주시청사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시설과 광주 디자인센터의 지열냉난방 시설, 담양호 소(小)수력 발전소 등을 견학하게 된다.

광주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기후

환경 변화로 인한 재앙을 막기 위해 서라도 풍력이나 지열, 소수력 등 다양한 재생에너지원을 찾을 필요가 있다"며 "이번 행사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을 키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운동연합은 무안의 풍력발전소와 순천의 태양광 발전소 등을 방문하는 신재생에너지 투어도 계획하고 있다.

문의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 (514-2470).

/김주정기자 jnews@kwangju.co.kr

생활안내	신 고
교통안내 광주종합버스터미널 360-8114 철도안내 1544-7788 대한항공 222-2000 아시아나항공 221-6300 한국도로공사 1588-2505	교육 국립중앙도서관 671-4050 광주 YWCA 527-0011 24시간 청소년상담 광주지점 233-2828 국민연금 1388 국제종합상담센터 국제전화 1588-0090 영유아인원상담 광주전남본부 1588-9090 소비자 상담 광주 YMCA 232-6133 광주 YWCA 524-5400 주부교실 232-0643-4 녹색소비자문제연구 369-9881
상담 당직번호새(21일) 222-0550 법무사회 법률상담(21일) 239-1809 박문서	국번 국번없이 112 국민연금 226-0112 전남경찰청 233-2828 광주지정 02118 가정폭력 여성긴급 국번없이 1366 여자행사기동대 363-0155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광주 남성의 전화 673-9001 광주아동학대예방센터 국번없이 1391 광주노인학대예방센터 국번없이 1389

(株) 행복출발은

창사이래 10년동안 오직 재혼만 전문으로 열과 성을 다한 결과 이제는 국내 최대 재혼 회원을 보유하고 최고 재혼교제율을 자랑하고 있으며 각종 언론매체에서 집중 조명 되고있는 국내 대표 재혼정보회사입니다.

회원수 1위 한국대표 재혼정보회사

초대졸 커플매니저 0명 모집

다양한 직업의 노블레스 여성회원 다수보유

(株) 행복출발 호남지역총괄 (062) 527-3388

인터넷 주소창에 주소(D) 마블닷컴 > go 을 치세요

Gallery RODEM 직수입 안티크 전문매장

로템갤러리

가구의 가격을 한층 높여 드립니다.

로템갤러리

직수입 안티크 전문매장 · 침대 · 식탁 · 소파 · 소품 · 가구 · 거울

각종 고급 침대

●진열상품 30%~최고70%

소파

●특별기획상품행사

식탁

찾아오시는 길 1가목방면

← 백문동 → 남평주 →

상상디자인 프라자 현대자동차 미래이동행진 RODEM

대표전화: (062) 653-4022

물류센터: 담양군 창평면 유천리 253-1